

# Elaine Phillips 박사, 성서 연구 입문, 8회, 샤론 평야, 갈멜산, 이스라엘 계곡

© 2024 Elaine Phillips 및 Ted Hildebrandt

저는 성경 연구 입문 강의를 하고 있는 Dr. Elaine Phillips입니다. 8회차 샤론평원, 갈멜산, 이스라엘 계곡입니다.

우리는 지역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자면, 우리는 실제로 이 짧은 기간 동안 이 나라의 남부 지역을 최대한 많이 통과하고 여행했습니다. 중앙에도 핸들이 있는데 잠시 후에 리뷰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제목 슬라이드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로 우리는 지난 연구에서 있었던 곳에서 북쪽과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토하는 것만으로도 항상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주요 권력 집단 사이에 있는 땅에 대해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으며, 그것이 여러 면에서 존재한다는 사실이 그곳을 믿음의 시험장으로 만듭니다. 우리의 첫 번째 지역 연구에서는 동쪽의 광야부터 유대 산간 지방, 블레셋 평야, 세펠라를 거쳐 전국에 걸쳐 해당 지역을 다루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네게브, 성서의 네게브, 더 큰 네게브, 시내산, 이집트에 더 큰 접근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번 강의의 앞선 강의에서 우리는 산간 지방에서 시간을 보냈고, 우리는 산간 지방의 매우 중요한 지역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지파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중 하나는 지난 강의에서 이야기한 북왕국의 수도를 사마리아라는 곳으로 옮기는 일의 의미이다. 서쪽으로 갈수록 서쪽, 특히 북서쪽에서 오는 국제적인 문화를 수용하는 데 더 개방적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나아갈 때 여기에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지도가 있으며 우리의 첫 번째 초점은 샤론 평원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안 평야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블레셋 평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이제 우리는 샤론(Sharon) 또는 샤론 평원(Sharon Plain)이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작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강의에 연결하면 이곳은 므낫세 반 지파의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로 이사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바로 여기 이 지점에서 기술적으로 확장될 지역이 있습니다. 샤론 또는 샤론 평원의 북쪽 경계는 나찰 타니님이라는 작은 장소입니다. 그것은 흥미롭게도 악어를 의미하는 타니님 강입니다.

고대에는 심지어 19세기까지 악어의 흔적이 보였다는 증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지점 북쪽에는 해안 평야의 작은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것은 사라질 때까지 정말 좁아지고, 우리가 나중에 다시 돌아올 카르멜 산은 바로 지중해로 튀어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도르(Dor)의 평원이며, 구체적으로 작은 마을로 정의됩니다. 구약성경에는 아주 드물게 등장하지만 거기에 있습니다. 그곳은 도르(Dor) 평야이고 도르(Dor)는 도시이다.

남쪽에는 우리의 최종 경계가 될 야르콘 강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길이가 약 30마일에 달하는 청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할 거예요.

샤론 평원의 동쪽 경계, 즉 샤론 평원은 우리가 본 것처럼 산기슭입니다. 특히, 바로 여기 이 부분은 우리에게 중요한 인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서쪽은 지중해입니다.

아마도 이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시다. 우리가 지질학에 대해 알고 있다면 현재 노출된 기반암이 없습니다. 우리는 충적토와 사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조금 뒤로 돌아가서 이 표현을 kurkar라고 부릅니다.

Kerkar는 Q 또는 K로 표기됩니다. Kerkar 능선은 석회화된 사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천연 시멘트와 같으며 앞으로 나아가면서 이것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히 충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이곳 유역이 있는 산간 지역에 내린 비로 인해 그 지역으로 흘러가는 물은 매우 풍부한 토양 성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물론, 해안을 따라 능선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쿠르카르 능선이 여러 줄로 이어져 있는데, 이 천연 시멘트 물질은 그 능선 뒤에 늪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샤론 플레인 은 구약성서에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의 상당 부분이 실제로 늪지대였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자라는 것들이 몇 가지 있지만 그 지역에는 도시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아마도 서너 번의 강의 전에는 이 지역을 통과하는 우리의 주요 경로가 산기슭 가장자리를 따라 바로 꺼안고 거기에 무엇이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가고,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카멜 산맥을 가로질러 지나갑니다. 조금 전에 나는 구약의 샤론 평야에서 일어나는 일이 거의 없으며 가이사라라고 불리는 이곳이 우리의 특별한 신약 시대에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는 이 특정 지도를 제공한 Carl Rasmussen의 Holy Land Photos 사이트에 감사드립니다. 그곳에서 가이사라가 맨 앞에 로드되어 강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카이사르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기 때문에 여러 개의 카이사레아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을 위해 우리는 두 가지를 만날 것입니다. 그 중 하나는 오늘 바다 옆에 있는 가이사라 마리티마입니다. 그리고 내일(안타깝지만) 다음 강의에서는 가이사라 빌립보를 다룰 것입니다. 헤르몬 산 지역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이 특별한 가이사라에 초점을 맞추고 여기서 우리가 다시 헤롯 대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을 주목해 봅시다. 헤롯 대왕이 헤롯 당원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헤롯 대왕은 아우구스투스 성전 단지를 만드는 일에서 예루살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헤롯 대왕은 특정 시점에 사마리아에 세바스트라는 발자국을 남겼고, 이제 우리는 가이사라에서 헤롯의 발자국을 크게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전에 이것을 말했지만, 우리가 이 자료를 진행하면서 이것을 주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반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헤롯은 과대망상증 콤플렉스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불공평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전쟁에 이겨서 이름을 그렇게 만들 수 없어서 억눌렸기 때문에 짓고 짓고 짓고, 자신이 왕으로 임명되자 조금은 그랬다. 지정학적으로 강력할 수 있는 왕국이 없다는 것이 조금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는 적어도 그것을 진정한 아우구스투스의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는 또한 내가 여러분에게 언급한 것처럼 로마 문화와 그리스-로마 문화를 유대에 가져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여기 이곳보다 더 나은 진입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하는 데에는 몇 가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해안선을 보면 천연 항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그냥 직선형 해안선이지만 고대에는 항구가 필요할 때마다, 어떤 종류의 배송을 하려고 하면 물론 로마는 지중해의 로마 호수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기술자들은 그 문제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확실히 우리는 요세푸스로부터 그곳에 정착지가 있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스트라토스 타워라고 했지만 작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헤롯은 로마 문화가 유대로 들어가는 입구이자 접근점이 될 도시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그가 하려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항구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천연 항구가 없어서 인공 항구를 건설합니다. 물론, 제가 특정 슬라이드의 맨 아래 줄에서 언급한 것처럼, 성령의 계획에 있어서 놀라운 반전은 그가 자신의 문화를 가져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전은 180도입니다. 왜냐하면 가이사랴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복음 메시지는 로마 호수를 건너서, 그리고 확실히 그 너머까지 전해질 것입니다.

또한 헤롯 대왕이 죽은 후 이 맥락에서 의미가 있을 또 다른 헤롯이 있는데, 나는 이 시점에서 이 구절들을 여기에 놓겠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것들을 읽고 나중에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이사랴의 중심과 함께 나타날 이 작은 헤롯 왕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누구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습니까? 이 강의를 훨씬 넘어서서 생각해 봐야 할 것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헤롯의 가이사랴가 무엇으로 구성되었는지에 대한 약간의 도표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처럼 그 표지판을 읽을 수 있지만 그는 그 도시의 이름을 딴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를 기리는 신전을 지었습니다. 자, 이것은 매우 매혹적입니다. 보시다시피 바로 여기에 아우구스투스 신전과 로마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소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해안선을 특별히 지향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아우구스투스와 로마를 기리는 이 사원은 실제로 로마를 직접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를 바라보고 있으며, 따라서 그 성전의 위치에서도 우리는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입니다. 헤롯이 여기서 지은 것에 대해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몇 가지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나는 항구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공항구. 그래서 요세푸스는 헤롯이 이것을 건설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항구에 들어가려면 북쪽에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바람이 아닌 우세한 바람, 우세한 해류가 이 방향에서 사물을 불러올 것입니다. 그렇죠? 우세한 바람은 서쪽에서 오지만 북쪽에서 오는 바람은 훨씬 더 보호받는 지역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양의 로마 함대를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해합니다. 잠시 남은 부분을 항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또한 요세푸스가 묘사한 대로 이것을 읽는 것은 흥미로웠습니다. 요세푸스가 묘사한 대로 우리는 여기에 알렉산드리아의 유명한 등대를 흉내낸 것으로 추정되는 등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로마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몇 가지 흥미로운 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항구가 건설되었습니다.

요세푸스는 헤롯이 큰 돌덩어리를 바다에 내렸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일을 탐구하기 위해 수중 고고학을 하던 중 헤롯이 실제로 한 일은 수중 시멘트를 부은 것임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신기술인 것 같은데, 화산재를 사용해서 들여오고, 가족이나 자루를 나무 구조물에 부어서 거기에서 굳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중 항구의 기반은 새로운 수중 시멘트 기술인 시멘트였습니다.

게다가, 그의 총명한 헤롯은 실제로 물을 내리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씻겨 내려가는 퇴적물이 유력한 해류에 의해 올라오고, 구멍이 있는 첫 번째 벽을 통해 물질을 밀어내고, 그것이 통과하기 전에, 그것은 거의 수중 포대 벽입니다. 두 번째 벽을 통과하기 전에 물의 속도가 느려졌기 때문에 퇴적물이 거기에 쌓였을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이 지역을 자주 준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기술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는 남겨진 기초에 대한 감각을 제공하는 항공사진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원, 항구,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헤롯도 자기 자신의 궁전을 지었고, 그것을 곳 위에 지었습니다. 그것은 Promontory Palace라고 불립니다.

여기에는 실제 기반암이 조금 남아 있고 거기에 수영장이 있었던 곳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1980년대에 발굴 작업이 일부 재건축되었으므로 적어도 그의 이 부분의 발자국을 볼 수 있습니다. 궁전이 있고 극장도 있었으므로 우리는 그 극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페리와 내가 1970년대에 처음 그곳에 갔을 때 이 지역은 온통 모래뿐이었습니다. 비잔틴 도시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잠시 그 장소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겠지만, 헤롯에게는 경주장과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거기에도 하나가 있는데, 그 이후로 이것이 밝혀졌습니다. 헤롯 시대에는 양쪽 모두였을 것입니다.

이제 2,000년 동안 바다에서 폭행당한 후에는 이 부분만 남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헬레니즘, 그리스-로마, 도시라고 해야 할 또 다른 구성 요소에 대해 좋은 감각을 얻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공중에서 찍은 사진이 어떻게 보이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거칠고 나도 알고 있지만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기에는 충분합니다.

지금은 방파제가 있지만 작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구경하고 재미있게 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다이어그램에서 본 방파제의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곳은 등대가 북쪽에 있었을 입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도 등대가 그 광대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바로 여기 Google 어스에서 들어올려진 현대적인 방파제, 오래되고 고대인 방파제의 수중 기초, 항구 입구에 대한 또 다른 접근 방식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정말 좋은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아 있는 경마장의 일부, 바로 여기에 있는 극장, 그리고 바로 튀어나온 곳 궁전의 일부, 수영장 부분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최근의 것입니다. 물 속으로, 그리고 궁전 구조 자체의 발자국도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것에 대한 작업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며 로마 아우구스투스의 사원은 여기에 많지 않고 단지 폐허와 물건일 뿐이며 이제 재건축 중이므로 모든 곳으로 이어지는 기념비적 계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요.

자, 계속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아, 죄송해요. 이것도 잊어버렸어요. 지금은 1970년대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조금 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항구 지역은 이 사진에 원형 극장이 있는 곳으로 아직 지하에 있습니다. 1970년대에 사이트라는 단어가 보이는 곳 뒤쪽에는 비잔틴 거리의 일부와 몇 개의 입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은 훨씬 더 많은 곳을 방문할 수 있으며 바로 여기 헤롯의 곳 궁전도 있습니다.

관찰은. 극장, 원형 극장, 그리고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것 중 하나; 글썄요, 우리는 옛날에 물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실제로 이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수로에 대해서 말이죠. 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넓은 장소에 살고 있고 그들 중 상당수가 군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세기를 통해 살펴보겠지만

가이사라는 로마의 존재와 측면에서 모두 눈에 띄는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기독교인의 존재 측면에서.

이쪽에서 볼 수 있는 이 첫 번째 일련의 아치는 수로를 여기까지 운반하고 다시 갈멜 산 기슭에서 물을 가져옵니다. 길 위의 모피 조각이지만 엔지니어인 로마인은 단지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는 그것을 끝까지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헤롯의 건설과 그의 뒤를 이은 몇 세대에 걸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예루살렘을 파괴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야기했던 최초의 유대인 반란은 서기 70년이었습니다.

2세기, 즉 132년부터 135년, 서기 132년부터 135년까지 두 번째 유대인 반란이 일어났고, 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황제 하드리아누스는 많은 로마 군대를 데려왔습니다. 그는 가이사라에 주둔한 로마 군대를 너무 많이 데려왔기 때문에 이 특정 수로의 뒤쪽에 실제로 들어오는 두 번째 수로를 추가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고 가져와야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수로입니다. 여기 바로 옆에 또 다른 수로도 있습니다. 하부 수로(Lower Aqueduct)라고 합니다.

그것은 또한 지붕이 있는 수로이며, 비잔틴 시대에 더 많은 물을 끌어내리기 위해 추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비잔틴 시대에 이곳은 우리가 잠시 살펴보겠지만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극장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아낸 것처럼 극장은 모든 그리스-로마 도시의 주요 구성 요소, 일종의 템플릿의 일부였습니다.

대부분은 하나 이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특별한 것은 재구성되어 사용 중입니다. 사실 이건 좀 더 오래된 사진이에요.

이제 가이사라에 갈 때마다 공연을 위한 온갖 종류의 첨단 기술이 적용된 영구적인 배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1세기에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고, 심지어 1970년대까지도 우리는 여전히 이 자리에 앉아서 공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의깊게 살펴보면 여기 바로 아래 몇 군데에서 재건되지 않은 원래의 석조 좌석 중 일부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조금 전에 사도행전 12장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헤롯 아그리파가 등장하는데, 이어서 헤롯 아그리파를 묘사할 요세푸스도 언급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2장을 읽어 보겠습니다. 본문에서 헤롯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헤롯 아그리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 대왕은 오랫동안 현장에서 벗어났습니다.

계속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12장. 정해진 날에 헤롯은 왕의 예복을 입고 왕좌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가이사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마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국민들에게 공개 연설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은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신의 음성이라고 외쳤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곧 주의 사자가 그를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것이 바로 그 이야기를 루크가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 요세푸스가 그것을 어떻게 제시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Josephus는 우리에게 더 많은 세부 사항을 제공합니다.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의 요점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 로마 제국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들은 헤롯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세푸스는 분명히 좀 더 정교해질 것입니다. 그는 아그리파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누가는 헤롯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의 헤롯 아그리파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그립바가 온 유대를 삼년 동안 다스린 후에 가이사랴에 이르러 거기서 가이사를 기념하는 공연을 열었더라. 둘째 날에는 순은으로 만든 옷을 입었습니다. 잠시 멈추겠습니다.

당시 극장은 공연에만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선전용으로 사용됐죠? 선전용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들은 그들에게 매우 많은 의제를 가지고 있었고 Agrippa의 매니저들은 그를 무대에 준비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 읽어보자. 그는 순은으로 만든 옷을 입었습니다. 그가 이른 아침에 극장에 들어왔을 때, 그의 은색 옷이 태양 광선의 신선한 반사에 의해 빛나면서 놀라운 방식으로 빛나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를 퍼뜨릴 정도로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그를 유심히 바라보던 사람.

다시 한번, 잠시 멈춰보세요. 우리가 방금 그 사진에서 본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무대에 서 있습니다.

그 모든 극장 좌석은 그의 앞과 사람들 뒤에 올라가고 있고, 태양이 그들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내가 말했듯이, 그의 무대 매니저들은 그들이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아침꾼들은 그가 신이라고 외쳤지만, 이에 대해 왕은 그들을 꾸짖지도 않았고 그들의 아침도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곧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는 부엉이를 보고 즉시 이 새가 나쁜 소식을 전하는 사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로마 문화에는 모든 미신 등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배에도 심한 통증이 생겼습니다.

그는 궁으로 끌려갔고, 얼마 안 있으면 그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소문이 도처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닷새 동안의 고통으로 지쳐 이생을 떠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요세푸스가 우리에게 말한 성경 본문의 확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이 맥락에서 극장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극장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이 경우 헤롯이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봅니다. 물론 약간의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헤롯과 관련된 것 외에도 주목할 만한 다른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고학을 할 때 이미 이 특정 작품을 살펴봤고 비문이 있다고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2차 용도에서 발견된 비문은 한때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기증하고 봉헌한 타이베리움에 대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장소. 그건 그렇고, 이것은 1963년까지 발견되지 않았지만 유대 총독이라는 이름의 본디오 빌라도라는 로마 총독이 여기에 매우 많이 관여하고 있다는 매우 흥미로운 느낌을 줍니다. 누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본문을 다시 확증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여기에 타이베리움 부분이 있고 여기에 폰티우스 필라투스의 필라투스가 있습니다. 우리는 1세기 동안 그곳에 로마인이 존재했다는 점에서 볼 때, 2세기에 하드리아누스가 그의 군대를 위해 이 앙트레 장소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고넬료 이후, 사도행전 10장, 바울이 투옥된 후, 그는 가이사랴에 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듯이, 우리는 교회의 확장뿐만 아니라 비잔틴 가이사랴의 확장도 경험합니다.

오리겐과 유세비우스는 둘 다 중요하고 매우 중요한 교회 교부로서 둘 다 가이사랴의 맥락에서 활동했습니다. 따라서 가이사랴는 그곳에서 거대한 중심지, 큰 도서관이 될 것입니다. 오리겐은 유대인 공동체와 다소 특별한 교류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Origen과 동시대 사람이었던 Rabbi Yochanan이 Origen의 교부였으며 두 사람이 주석 문제를 놓고 앞뒤로 교류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교부인 유세비우스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역사를 남겼고 이름 목록이자 지리학, 장소 이름에 매우 도움이 되는 의성어를 남겼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가이사랴에 관해 우리가 말하는 전부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약간의 맛을 주지만 우리는 갈멜 산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카르멜이라는 단어는 포도원을 의미하므로 캐러멜은 하나님의 포도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최소한 지중해로 바로 튀어나올 이 특정 수갱 또는 곳의 세 부분에 대한 지도를 그려 봅시다. 우선, 우리는 이것을 봅니다.

그리고 모든 의도와 목적에 있어서, 그것은 갈멜 산이 적절합니다. 그렇죠? 곳이 높은 이유는 고도가 높기 때문이고, 더 서쪽에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양의 비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쪽과 동쪽으로 이동하면 또 다른 세펠라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유다에서 하나를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갈멜산 세펠라가 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지질학.

여전히 역겨운 일이지만, 당신이 말하는 것만큼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 갈멜산의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 운전해서 가면 상황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초목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랄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에는 단단한 석회암의 세 번째 블록이 있습니다. 이곳은 여기보다 낮고 더 동쪽에 있으므로 곳인 갈멜산만큼 푸르른 곳은 아닙니다. 잠재적인 장벽이 얼마나 큰지 멀리서 감을 주기 위해, 우리는 실제로 카르멜산 북쪽에 서 있고 바로 여기 아코 만(Aco Bay) 건너편을 바라보고 있으며 여기 지중해로 바로 튀어나온 곳이 있습니다. 바다.

이것은 실제로 우리의 유일한 천연 항구인 Akko 만입니다. 우리는 Akko에서 있습니다. 또한 프톨레마이오스의 이름을 딴 프톨레마이오스로 알려진 중간기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맥락에서 전개되는 일부 사건을 더 자세히 탐구하기 시작할 때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세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마지막 사진을 찍었던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 만 지역을 가로질러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이 사이의 땅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되새깁니다. 그리고 좋아요, 길은 이렇게 갑니다. 다 좋은데, 장벽에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두로, 시돈, 페니키아로 어떻게 가나요? 아니면 갈릴리 바다를 지나 다메섹, 앗시리아, 바빌론 등으로 가나요? 이 특별한 장벽을 어떻게 통과합니까? 글썄요. 여기가 지질학 기둥이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중간 지질 시대에 녹색 물질, 즉 단단한 석회암 사이에 백악층이 놓여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들은 수평으로 깔려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중에 그것들은 들어 올려지고, 단층을 이루고, 배사 및 동조로 이동되었습니다.

요점은 분필 패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지점에 분필 층이 있고, 이것과 이것 사이에 있고, 저 부드러운 석회암과 이 다른 블록 사이에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분필은 부드럽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침식되므로 패스가 생성됩니다. 이것은 더 견고하고 약간 더 견고하며 더 낮은 영역입니다.

고대의 주요 경로와 오늘날, 그리고 오늘날이 분필 패스를 통과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6번 국도인 주요 고속도로가 있고, 유료 도로가 여기로 올라와서 바로 저기 있는 특정 분필 통로를 통과합니다. 그러니 명심하세요. Jokeam이 있습니다. 그런데 Jokeam이 여기 이 분필 통로를 보호할 것입니다.

누군가 페니키아로 가고 싶다면 그쪽으로 지퍼를 내린 다음 바로 여기로 향할 것입니다. 므깃도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이 통로를 통과하여 므깃도에 도착한 다음 목표나 목적지가 무엇인지에 관해 다음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결정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단지 고개가 아니라 계곡 전체 지역입니다. 이것은 더 넓고, 조금 더 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여기에는 조금 더 뒤죽박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계곡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우리에게 계곡이 있는데 그 이름은 도탄이라는 도시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창세기 37장을 읽어보면 정말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아버지가 형들을 살피라고 보낸 요셉이 있을 때, 그의 이복형들은 양 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조셉은 아직 집에 돌아왔습니다. 날이 점점 더 건조해지기 때문에 그들은 여기 아래 헤브론에서 출발하여 먼저 세겜으로 가고, 요셉이 그들을 따라잡아 보니 그들은 더 이상 세겜에 있지 않습니다.

아, 그런데, 그들은 도탄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따라잡으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도탄 계곡이라는 장벽을 통과하는 주요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이며, 이 경우에는 아마도 여기를 따라 동쪽으로 향할 것입니다.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음, 이 지도에서 거꾸로 추적해 봤습니다. 창세기 37장에는 이스마엘인 미디안인 무역상 무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로 가고 있습니다.

아, 글썄요, 그들은 우연히 이 길을 택하게 됐어요. 잠시 후 헤롯 계곡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연히 이쪽으로 가다가 므깃도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계곡을 통과하려고 하는데 갈멜산 장벽 남동쪽 끝을 돌아서 그곳으로 가는 길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구덩이에서 그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형들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을 때 이곳이 그들이 있는 곳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서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를 데리러 간다.

그들은 이집트로 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이 이집트로 오고 등등, 그리고 출애굽까지 계속된다는 점에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지질학적 지도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갈멜산 곳의 북동쪽에서 우리는 이 지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어의 영어 음역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Q와 K가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기손 골짜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기손 시냇물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갈멜 산의 북동쪽 급경사면을 따라 흐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 골짜기 전체를 배수하는 푸른 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계곡 전체에 걸쳐 지류가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게 중요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봅시다. 우선, 이스라엘 역사의 결정적인 시기는 엘리야의 사역이 될 것인데, 이것이 우리와 연결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먼저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벤트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지난 연구에서 나온 사마리아와 페니키아 사이에 연결점, 정말 중요한 연결점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갈멜 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건 그렇고, 엘리야의 사랑스러운

아이콘은 그 아이콘을 좋아할 것입니다. 여기 엘리야가 먹이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 대부분의 번역에서는 까마귀라고 말하고 거기에는 시냇물과 물, 그릿 시내와 물이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까마귀를 의미합니다. 또는 까마귀는 orev이고 거기에 있는 모음을 약간 비틀면 arav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엘리야에게 먹이를 준 것은 새가 아니라 지역 부족일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먹이러 오는 아라빔입니다. 이 왕들의 이야기에는 아라빔이라 불리는 종족에 대한 다른 언급이 있지만 그것은 약간 옆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주요 요점은 우리가 말했듯이 이제 아합, 이세벨, 그리고 북쪽 왕국을 의미하는 사마리아의 국교인 바알 숭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던져볼 수 있는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주목하세요. 북왕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고 가증한 일이 만연한 나라인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나중에 호세아와 아모스를 보낼 때도 같은 일을 하겠지만 여기서는 엘리야를 보냅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자면, 바알 주인은 가나안 판테온 신화에서 비, 천둥, 폭풍, 그리고 기근이 닥칠 수 있는 지역을 통제하는 신이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하고 바알을 숭배하고 싶은 유혹을 불러일으키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면 농업 생산성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농업 생산성이 있으면 경제적 안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유혹이요, 금송아지 숭배와 같은 북쪽 왕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른 일들에 더해, 바알 숭배는 페니키아에서 들어왔습니다. 페니키아는 이 물건을 가져올 분명한 장소입니다. 바로 해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것들을 매우 염두에 둘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와서 그 땅에 기근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심각한 사업이 될 것입니다. 그는 먼저 이 그림에서처럼 트랜스요르단에 숨었고, 그 다음에는 실제로 바알의 영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페니키아에 숨어 있는데 그곳에서 펼쳐지는 사건들도 마찬가지로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다음에 할 일은 북쪽 왕국으로 돌아가서 아합의 종 오바다를 찾아 "좋아, 이제 내가 아합을 만날 시간이다"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갈멜산에 모였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장소인지를 상기시켜줍니다.

여기에 또 다른 버전의 지도가 있는데, 갈멜산의 높이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높이를 봅니다. 32인치의 비가 내립니다.

우리는 이것이 매우 비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으니 제 말을 들어주세요. 나는 돌아가서 여기서 왕의 설화를 읽을 예정이다. 역사상 이 시기인 오므리, 아합 등이 올 때쯤에는 그 부족들, 특히 앗수르 지파, 아수르 지파가 지중해 연안을 따라 갈멜과 남쪽 사이 이 지역 바로 근처에 정착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페니키아.

그 아수르 부족에는 다소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솔로몬은 실제로 이 아수르 부족 지역의 일부 도시를 두로의 히람 왕에게 주었으며, 그것이 계속해서 지배를 받아온 것 같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조금만 생각하고 도시에 대한 페니키아의 통제권을 갖고 있다면 여기를 통해 누출과 문화적 누출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시점에 도달할 때쯤이면 카르멜 산은 지리적 경계이기 때문에 경계처럼 느껴지고 장벽이 된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페니키아가 아래로 스며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도 이스라엘, 북왕국, 여기 위의 페니키아 사이의 사실상의 경계일 것입니다. 사마리아가 있고, 페니키아 지역이 있고, 여기서 두 가지 문화적 요소가 합쳐져서 충돌하게 되고, 갈멜 산에서 충돌하게 되는데, 이는 완벽한 무대입니다.

왜 완벽한 무대야? 글썄요, 그곳은 바알의 영역입니다. 일반적으로 농업 생산성과 관련된 모든 것이 녹색이지만 그 땅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지정학적 잠재적 충돌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단계입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우선,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이제 거기에 매우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갈멜회 수도원을 갖게 되었고 그들은 엘리야 사건을 기념하는 동상을 세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읽을 때 사람들은 양가적인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어를 읽으면서, 그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가지 위에서 계속 비틀거리느냐? 좋아요, 그들은 기본적으로 울타리를 타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데, 그가 무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리적으로도 중요합니까? 그는 이 모든 것에 물을 버리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3년 반 동안 기근을 겪었습니다. 아모스 1장과 나훔 1장만 생각해보면 갈멜 산 꼭대기가 마르면 상황이 나빠진다고 합니다.

글쎄요, 바로 여기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여기 엘리야가 자기 차례가 되면 제물 전체에 물을 부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 주님은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다 어디로 끌려가느냐?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기손 시내로 내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하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리를 따라 걸으면서 기손을 지적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우리가 약간 상징적으로 생각하고 싶을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계곡 전체를 배수하는 물이 그것을 씻어내는 것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상징적으로 말하면 오물을 바다로 씻어 내는 것입니다. 물론 바다는 심연의 혼돈 속에 어떤 종류의 악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어쨌든 부정적인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13장에 나오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모두 그곳으로 내려가 죽임을 당합니다.

글쎄요, 우리는 엘리야를 떠날 것입니다. 비록 그의 비행이 시내 산으로 돌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그곳에서의 재임임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말입니다. 샤론 평야와 갈멜 산의 관점에서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강의 세 번째 부분으로 Jezreel Valley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왔고 이것을 장벽이자 매우 중요한 발판으로 다루었습니다. 이제 이 지도 전체에 모든 것을 배치하기 전에 이것의 모양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좀 개략적으로 생각해 보면 화살촉이 보이고, 화살촉의 화살촉인 헤롯 골짜기에 표시된 것이 보입니다. 모든 의도와 목적에 있어서 우리는 이런 맥락에서 일어나는 전투마다 전투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아 두십시오. 그러나 거기에 도착하기 전에 흥미롭게도 바로 여기에 Jezreel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기록상 이곳은 이세벨이 있던 곳이고, 갈멜산에서 우리가 대결한 후 아합이 병거를 타고 그곳으로 갔던 곳인데, 실제로 엘리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로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북쪽 나사렛 능선으로 우리 경계를 정하려고 합니다. 그 곳에는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섹션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석회암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Nazareth Ridge, 부드러운 석회암, 북쪽 경계입니다.

남서쪽으로는 이스라엘 계곡의 경계로 갈멜 산과 시내가 있습니다. 동쪽에서는 이것이 여기서 펼쳐지는 일부 일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약간의 충돌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어요.

그것은 Mount Tabor 또는 Tavor라고 불립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두 번 이상 돌아올 것입니다. 남쪽으로 가면 바로 여기 화살촉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Moray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갱 건너편에는 길보아 산이 있고, 그 다음에는 Hurroad Valley가 우리의 화살대입니다. 다시 한 번 화살촉을 보고 이 계곡의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자주 사용하십시오.

그런데, 그곳이 단지 전쟁터일 뿐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합시다. 또한 때로는 늪지대인 지역도 있지만 이제는 농업 생산성도 매우 높습니다. 주요 도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역 연구 지도를 작성하시는 분들을 위한 지도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갈릴리 지도이므로 우리에게 약간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므깃도, 므깃도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19세기 말에 글을 쓴 조지 아담 스미스(George Adam Smith)라는 매우 중요한 지리학자입니다. 성지의 역사 지리학이라고 불리는 그런 좋은 것입니다. 정말 좋은 책이에요.

므깃도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극장 중 하나에 있는 왕의 상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전쟁터이자 극장이라고 부르는 바로 여기 지역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므깃도는 그 위치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왕의 상자입니다.

Jezreel, 우리가 이미 언급한 바가 바로 그 위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 있었던 곳으로 되돌아가면,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대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합은 이 병거를 타고 엘리야는 달려가서 둘 다 이스라엘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나사렛. 이제 나사렛은 이스라엘 골짜기에 있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가깝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사렛을 지적할 때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갈릴리를 공부할 때 나사렛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잠시 후에 여러분에게 분명해지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여기서 이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글쎄, 이곳은 엔도르(Endor)라는 장소만큼 잘 알려져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도에 표시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거기는. 여기 빨간색 별표가 보이면 Endor는 해당 별표의 약간 북쪽과 동쪽에 있습니다.

좋아요. 엔도르의 의미로 다시 돌아오길 바랍니다. 자, 그거 알아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여기에 지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기 때문에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 시점에서 약간의 역사적 여담이 있습니다. 사울이 말년에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맞섰을 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해안 평원으로 진군해 왔습니다.

그들은 이 장벽을 통과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골짜기를 휩쓸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Beit Shan이라는 곳에 사원이 있는데, 우리는 다른 강의에서 이에 대해 공부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인생은 쉽지 않다.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길보아 산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잠시 후에 인쇄물로 언급하겠지만, 서사의 기본을 이야기하면서 지도를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울은 절망적입니다.

여기 온통 블레셋 사람들이 있어요. Moray 산의 경사면에 있다고 하더군요. 기억하세요, Tabor, Moray, Gilboa.

사울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는 주님께 여쭙어 보려 했지만 아무런 응답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사무엘상 28장의 이야기를 안다면, 그는 '안돼'라고 변장하고 엔도르에 사는 마녀에게로 갑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나요? 사울은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적진 뒤로 갔습니다.

이것은 적진입니다. 그는 적진 뒤로갑니다. 이 마녀가 있습니까? 그런데 모든 마녀, 영매, 점술가는 그 땅에서 금지되었지만 그는 어쨌든 그녀를 찾고 그녀는 그에게 그가 할 것이라는 매우 냉정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다음날 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요점은 지도를 보면서 사울이 행한 일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절박함을 인식하면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사울로부터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면서 지금의 장소를 생각하면 일관된 역사적 서술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장소가 됩니다. 수넴이라는 곳이 있어요.

수넴은 내가 방금 여러분에게 말한 이야기인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언급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의 계승자인 선지자가 있는 곳이 수넴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엘리사입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이야기를 잘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왕 2세, 기본적으로 엘리사가 여행할 때마다 그를 위해 민박을 짓는 여자와 그녀의 남편이 있습니다. 현대적인 용어로 사용하기가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약간의 호의를 베풀고 싶어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원합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는 아들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들에게는 아들이 있지만 아들은 아마도 12세에서 15세쯤 되었을 것이므로 그는 죽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나는 시점에 엘리사는 갈멜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선지자들이 그곳에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은 슬픔과 신뢰를 안고 이스라엘 계곡을 건너 엘리사와 그의 종 게하시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분은 돌아와서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일으키십니다. 내가 왜 그 이야기에 들어 갔습니까? 그런데 신약성경에는 누가복음 7장이 나옵니다. 나인이라는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직 Luke만이 이것을 기록했는데,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예수께서 어떻게 이 마을로 가실 것인지 말해 줄 것입니다. 그는 그것에 가까이 오고 있다. 그리고 여기 나인성에서 나오는 과부의 죽은 아들이 있기 때문에 행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올라가서 관에 손을 대실 것이다. 청년은 죽음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예언자가 있다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과 정신 속에 적어도 그들 중 일부는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모퉁이 돌면, 솔직히 산 바로 근처에서, 그로부터 7세기 전에, 8세기 전에, 인구 증가가 일어났습니다. 수넴 여인의 죽은 자의 아들이요, 여기도 그러하니라. 그런데 나사렛은 그 위치가 매우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역사의 극장에 있는 이 커다란 왕실 상자를 바라보고 그것이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뒷마당이었다는 것을 깨달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는 이 지역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것들을 알고 있었지만, 인간이 청년으로 성장하고 인간 측면이 성장하더라도 그는 이러한 이야기와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비록 예수는 아니더라도 그의 청중이 그들의 역사적 전통을 알았을 것이고, 따라서 다시 우리 가운데 선지자가 일어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글썄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순서대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이 맥락에서 결코 이집트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18왕조 투트모세 3세는 성경 본문에 전혀 언급되지 않지만 여기서는 기원전 1400년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므깃도를 원했고 실제로 그에 대해 썼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대대적인 진출을 시도할 것입니다.

므깃도를 위한 그의 전투, 그가 어떻게 므깃도를 점령했는지, 그리고 그가 결정한 갈멜 산맥을 통과한 것에 대해 모두 읽을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지리적 설명입니다. 그러나 성경 자료로 넘어가면 사사기 4장과 5장의 드보라와 바락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싸움은 하솔 왕 야빈의 군대를 지휘하는 시스라와의 싸움입니다. 이것은 북부 왕국의 일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계곡에 관한 썸네일 스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볼 산에 진을 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산 위에 있어요. 시스라의 철병거가 이스라엘 골짜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5장의 시를 읽으면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됩니다. 그 시에서는 별들이 제 길을 따라 싸웠고, 적군은 막강한 키손에게 휩쓸려 갔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돌과 돌을 합쳤을 때, 역시 전투에서 승리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불산을 휩쓸면서 가나안 군대는 비록 철병거의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계곡의 진흙탕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계곡이 진흙투성일 수 있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시나요? 비옥한 토양, 일종의 진흙탕.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사사기 4장의 산문 이야기를 계속 읽어보면 그가 야엘, 즉 감옥이라는 여자에게 목숨을 잃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글썄요, 그 외에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바로 이것에 대한 우리의 맥락입니다.

지도에 표시를 하고 있는 여러분 중 일부는 거기에 그 이야기를 넣을 것입니다. 우리는 미디안 사람들과 맞선 기드온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싸움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일이 하룻 샘에서 일어날 것인데, 하룻은 길보아 산 기슭에 있는 하룻 골짜기에서 그 이름을 따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레이 산에 진을 치고 있는 미디안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역사적인 성경 이야기를 당신 앞에 펼쳐 놓고, 그것을 읽으면서 성경과 지도를 함께 펼쳐서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위칠티엔도르에 도달하기 위해 적진 뒤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고, 슬프게도 31장에서는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 산에서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일단 그것을 읽고 나면 우리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 나라를 거의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우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 끔찍한 시간에서 상당히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동안 우리는 다윗의 왕국이 솔로몬에게 계승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솔로몬은 게셀을 요새화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배웠습니다. 므깃도, 여기 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그가 요새화한 세 번째 도시가 하솔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므깃도의 위치를 보셨으니, 그곳은 갈멜 산의 장벽을 통과하는 큰 통로의 끝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 무대, 이 전쟁터, 이 극장 전체를 훌륭한 매표소 위치에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므깃도는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엘리야가 수넴에서 한 청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으며 예수님께서 이와 유사한 기적을 행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언급했는데, 이는 우리 가운데 선지자가 있다는 논평을 촉발시켰습니다. 여기에는 없지만 요한계시록 16장에는 아마겟돈에서 벌어지는 마지막 격변적인 묵시적 전투인 전투가 있다는 것도 말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므깃도 산인 하르므깃도를 그리스식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이 특별한 장소에서도 그 산이 예견된다는 것은 매우 적절해 보입니다.

흥미롭게도 Allenby가 1900년대 초에 등장했을 때 그는 아마겟돈의 군주가 되었으며 그 맥락에서 그 칭호를 자신에게 부여했습니다. 우리가 마무리를 하는 동안 몇 장의 사진만 찍었습니다.

이것은 게이트 영역 중 하나입니다. 남아 있다는 점에서 부분적입니다. 우리는 Hazor에 관해 이야기할 때 이 문제를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보길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에 조금 더 높은 고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방은 차단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여기 방 중 하나가 보입니다. 바로 여기 이 부분에 이에 대응하는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므깃도는 전체적으로 발굴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1920년대 후반이나 1930년대 초반에 발굴되었어야 했던 것보다 더 철저하게 발굴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빼앗겨서 더 이상 공부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텔의 꼭대기인 므깃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의 가장 최근의 계단, 이 수갱으로 훨씬 더 내려가는 오래된 계단은 수평 터널 속으로 훨씬 더 깊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여기 이 수갱 바닥에서 기반암을 뚫고 사람들이 물에 접근할 수 있을 때까지 그 방향으로 직선으로 뻗어나가는 수평 터널을 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더 설명하고 약간의 리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지도에서 보았던 종류의 것들을 실제로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지도를 다시 머릿속에 떠올려 갈멜 산 기슭의 므깃도에 서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스라엘 계곡 건너편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여기 길보아 산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화살촉의 머리 부분인 하롯 계곡이 있습니다.

여기는 모레 산이 될 것입니다. 안개 속에 있어요. 그러므로 사울과 요나단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곳을 휩쓸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거기에 있는 엔도르(Endor)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적진 뒤로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비록 안개 속의 작은 돌기일 뿐이지만, Mount Tabor 돌기가 있습니다. 저절로 다 붙습니다. 당신은 항상 그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바로 타보르 산이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드보라와 바락을 거기에 세우고 시스라와 그의 모든 군대를 바로 여기 진흙 속에 가두어 두십시오. 예수와 나사렛은 지도에서 왼쪽에 있을 것입니다.

흥미롭고 현대적인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여기 이 두 개의 활주로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지하 항공기 구역에서 나오는 활주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곳에 오랫동안 서 있으면 실제로 비행기가 땅에서 이륙하여 하늘로 휩쓸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그림을 볼 때 이 지역의 군사적 중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인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글썬요, 바로 여기 다볼 산의 더 선명한 그림인 이스라엘 계곡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북쪽 나사렛 능선에서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갈릴리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다음 강의에서 이 특정 슬라이드와 이러한 관점을 다시 살펴볼 것입니다. 요약 및 검토. 이것이 다음 강의와의 연결고리입니다.

우리는 헤롯과 가이사랴가 주로 정의한 샤론 평야와 그 이후의 교회 전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갈멜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완벽한 무대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수천 년 동안의 전쟁터이자 미래의 전쟁터인 이스라엘 계곡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으로 이 특정 지역 연구를 종료합니다.

다음은 갈릴리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저는 성경 연구 입문 강의를 하고 있는 Dr. Elaine Phillips입니다. 8회차 샤론평원, 갈멜산, 이스라엘 계곡입니다.